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반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조 윤 경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학생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반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내적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분노반추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0세 미만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265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문제 척도(KIIP-SC),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 분노반추 척도(K-AR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반추, 그리고 대인관계문제의 하위 유형인 순종, 공격, 고립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분노반추도 공격과 고립에 영향을 미쳤는데 순종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내적 수치심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과 고립에 대해서는 분노반추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종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성격 특질이지만, 인지적 과정에 따라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환자나 내담자를 다룰 때 부정적 감정 기저에 있는 수치심과 함께 분노반추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된다.

주요어: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반추, 대인관계문제, 순종, 공격, 고립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현명호, (1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에게 의존하여 살아오고 성장하는 동안 ‘또래’ 관계를 형성하며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 이렇듯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삶의 만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는 대인관계를 통해 안전감과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나 갈등으로 인해 고립감, 외로움, 적대감과 같은 부정 정서를 경험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불특정한 타인과의 접촉이 증가하고 관계를 통해 기술을 배우며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대인관계가 하나의 스펙이 될 정도로 대인관계문제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권다운, 2015).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관계에서 받는 정서적 지지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쳐(박영신, 김의철 2006) 관계를 맺는 능력이 심리적 부적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생활의 적응 수준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안세은, 2014).

발달 과정에서 대인관계가 잘 형성되면 인격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잘 형성되지 못하면 정서적 문제를 초래하여 삶의 질이 저하된다(권석만, 2008; 이성은, 2014; 장석진, 연문희 2009; Alden & Phillips, 1990). 신프로이드 학파의 학자인 Horney(2006)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불안이 신경증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신경증이란 정서적으로 불안정성하여 내적 갈등을 잘 조절하지 못해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신경증적 경향은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인관계에서 다음 세 가지 행동을 한다. 첫째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기(move toward

people)’로 순종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타인에게 인정이나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하위 요인에는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이 있다. 둘째는 ‘사람과 부딪히고 대항하기(move against people)’로 공격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타인을 지배하고 우월감을 느끼려는 욕구가 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공격, 비난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위 요인에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가 있다. 셋째는 ‘사람을 회피하고 거리를 유지하기(move away from people)’로 고립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불편하게 느껴 거리를 두려 하고 혼자 지내는 유형으로 타인에 대한 모든 감정을 부정하고 억누르면서 이성적 사고를 중시하며 하위 요인에는 냉담, 사회적 억제, 억제가 있다. 건강한 사람은 세 가지 행동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데, 하나만 추구하면 신경증적인 갈등이 생겨 나머지를 억압하여 심리적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다(김민주, 2018).

실제로 치료 및 상담 장면에서 방문하는 환자나 내담자가 일차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는 성격이나 정서 문제이나 대부분은 대인관계문제로 인해 나타나거나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킨다(권석만, 김지영, 2002; Horowitz, 1996). 2006년부터 전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2012년에는 학업 및 진로로 전체 상담의 25%를 차지하였던 반면 2017년에는 대인관계 문제가 27.1%로 가장 많아서 최근 청소년은 관계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서미 외, 2018). 2015년 중앙대학교 신입생·재학생 의식조사 및 정신건강 실태 보고에서도 신입생 및 재학생이 가장 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2순위가 대인관계향상 관련 프로그램(17.6%)이어서 대학 상담에 있어서도 대인관계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알 수 있다(조윤경 외, 2015a, b).

대인관계문제(Interpersonal Problems)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재, 결함 혹은 왜곡된 것, 그리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보호,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박경애, 이재규, 권혜수, 1998). 대인관계문제는 개인의 주관적 고통을 유발하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되어 개인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Horowitz, Rosenberg, Bear, Ureno, & Villasenor, 1988),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대인관계에 따르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서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들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서은혜, 2005).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는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우울감, 분노감, 무력감 등의 이차적 정서를 호소하여, 기저에 있으면서 직면하기 어려운 강한 감정인 수치심을 상담 장면에서 놓치기 쉽다(안봉화, 2011).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인 수치심(Shame)은 자신의 결점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났을 때 자신을 부적절하고 무가치하게 느끼는 것이다(Kaufman, 1989). 수치심은 상태 수치심

과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상태 수치심(State shame)이란 어떠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느끼는 수치심으로 부정적 기능도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기능도 가진다. 반면에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은 수치심을 유발한 상황이 지났음에도 ‘자아정체감으로 내면화되어 열등감과 부적절감, 부족감을 깊이 느끼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수치심’으로 정의된다(김민경, 현명호, 2013).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생기는 정서로서 양육자로부터 광범위하게는 타인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인간 관계를 통해 발생한다(권다운, 2015; 이인숙, 최혜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서인 동시에 개인의 내면화된 성격으로(Cook, 1987) 발달 초기에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일생에 걸쳐 작용한다(장진아, 2006; 최두환, 2013). 특히 부정적 양육 방식으로 인해 수치심을 반복하여 경험하면 수치심에 기초한 정체성이 형성되기 쉽다. 또한 수치심을 내면화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며 자기공격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채 더 이상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관계를 끊거나 관계로부터 회피하거나 철수한다(서영숙, 김진숙 2007). 특히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여 타인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대상을 공격하여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권다운, 2015; Lewis, 1971). 이들은 주로 행동화, 수동공격, 투사, 공상 등의 미성숙한 방어와 철수, 반동형성, 억제 등의 자기 억제적 방어 그리고 격리, 체념 등의 갈등 회피적 방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

여 대인관계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이지연, 2008). 대인관계문제를 유형 별로 살펴보면 첫째, '사람에게 향한' 문제인 순종적 태도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적 상관관이 있어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의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과 관련이 높았다(고종숙, 2016; Wells, Hill, Brack, & Firestone, 2006). 둘째, '사람에게 맞섬'인 공격적 태도도 자기중심성, 통제지배, 과관여와 같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이화수, 2014). 셋째, '사람에게서 멀어짐' 문제인 고립적 태도도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적 상관관이 있어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신을 부적절하게 여겨 자기에 대한 개방을 꺼리고(Gilbert, Allen, & Goss, 1996), 대인관계의 사회적 억제, 냉담과 관련이 높았다(고종숙,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를 경험하는데(최임정, 심혜숙, 2010; Tangney, Wagner, Fletcher, & Gramzow, 1992), 수치심이 강렬하다 보니 회피하면서 분노로 대치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Lewis, 1987). 특히 분노가 내면화된 수치심의 방어기제로 사용되어 수치심을 느끼는 개인은 타인에게 부적절하게 대우받으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권다운, 2015). 이렇게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은 분노 유발 사건에 대해 계속 반추하는 인지적 과정을 경험한다(Beck, 2000; Deffenbacher & McKay, 2000). 분노가 정서라면 분노반추(anger rumination)는 부정적 느낌을 해결하기 위한 의식적 시도로 분노를 경험하는 동안이나 경험한 후에 의도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인지적 과정으로(최두환, 2013; Sukhodolsky, Golub, & Cromwell, 2001; Tomsen, 2006) 분노를 유발시킨 상황을 반복적으로

로 생각하거나 보복하는 생각을 거듭하는 것이다(Ellis & Tafrate, 1997). 이러한 분노 반추는 분노에 대한 반응방법이지만 반응할 순간을 고려하면서 분노 반응을 지연하기 때문에(Sell, Tooby, & Cosmides, 2009), 분노를 지속하거나 증폭시킨다(Greenberg, 1995).

이러한 점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분노를 쉽게 경험함에 있어서 분노반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수치심과 반추와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반추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Cheung, Gilbert, & Iron, 2004),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추의 매개 효과(조호진, 2008)와 수치심이 반추에 미치는 영향(임진, 김은정, 2012)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노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보복 반추가 중요한 인지적 요인이었으며(임문영, 2014),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반추를 더 많이 하였다(최두환, 2013).

분노반추는 분노 경험의 강도나 지속력을 증폭시켜 분노로 인해 유발되는 결과를 더욱 악화시킨다(Rusting & Nolen-Hoeksema, 1998). 분노반추를 많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증가하여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타인에게 친밀한 감정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임문영, 2014), 분노를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분노억제를 하게 되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기주장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윤경, 2007; 박은혜, 2010; 이성은, 2014; 정미리, 2005). 또한 공격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분노반추를 많이 할수록 분노감과 공격성이 증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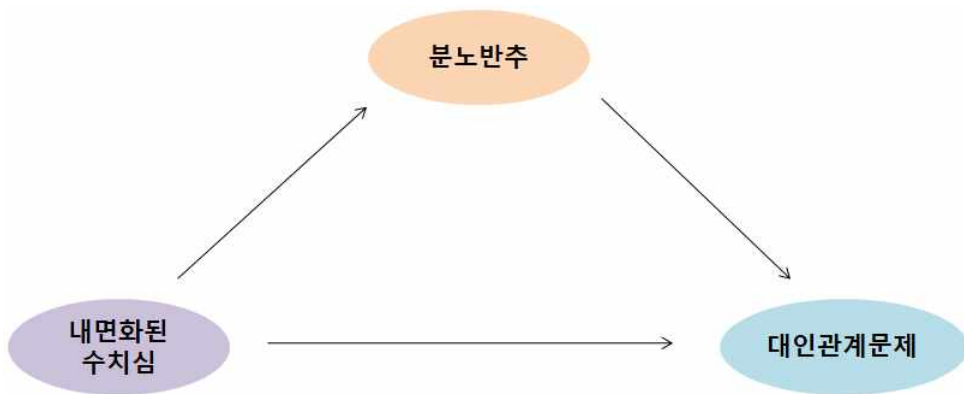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델

(Bushman, 2002), 언어적·신체적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분노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Anestis, Anestis, Selby, & Joiner, 2009) 타인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등(박정미, 2013) 대인관계 상의 문제해결력이 감소한다(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내적 수치심과 분노반추가 각각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 문제를 예측하는 내적 수치심과 분노반추 간에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내적 수치심과 분노반추가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내적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분노반추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특히 내적 수치심이 정서적 측면이긴 하나 쉽게 변하지 않는 성격 특질로 간주되어(Cook, 2001) 개인의 내면화된 성격 특질로 볼 수 있으며, 분노반추는 인지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대인관계문제 하위 유형인 순종, 공격, 고립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인지치료 접근이 가능한 분노반추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임상이나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문제를 가진 환자나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0세 미만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설문조사에 동의한 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 자료와 극단값이 나온 1명의 자료를 제외한 24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성이 85명(34.7%), 여성이 160명(65.3%)으로 연령 평균은 남성이 22.86(± 3.13)세, 여성이 21.57(± 2.27)세였다. 연구 대상자는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도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까지 차이가 있어 연령, 성별과 각 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관 정도가 유의하지 않아 연령과 성별을 통제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

대인관계문제 척도 단축형.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등(1988)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와 Pincus (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한 원형척도(IIP-Circumplex Scale: IIP-C)를 김영환 등(2002)이 표준화하고(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 홍상항 등(2002)이 단축형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의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SC)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지배(PA, 5문항), 자기중심성(BC, 5문항), 과관여(NO, 5문항), 냉담(DE, 5문항), 사회적 억제(FG, 5문항), 비주장성(HI, 5문항), 과순응성(JK, 5문항), 자기희생(LM, 5문항)의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Horney는 대인관계문제를 3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순종형(사람에게 향함)’으로 하위 요인이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이며, 두 번째 유형은 ‘공격형(사람에게 맞섬)’으로 하위 요인이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이다. 세 번째 유형은 ‘고립형(사람에게서 멀어짐)’으로 하위 요인이 냉담과 사회적 억제이며,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김영환 등(2002)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에 해당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7로 하위 유형별로는 ‘순종형’이 .65, ‘공격형’이 .44, ‘고립형’이 .91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 (1987)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가 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시킨 Rosengerg의 자존감 척도 6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을 합산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한다. Cook(2001)은 ISS를 단일요인구조로 보고하였으나, 이인숙과 최해림(2005)은 부적절감(10문항), 공허(5문항), 자기처벌(5문항), 실수불안(4문항)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분노반추 척도. 분노를 유발시킨 상황을 반복해서 생각하거나 곱씹는 경향인 분노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Sukhodolsky, Golub과 Cromwell(2001)이 개발하고 이근배와 조현춘(2008)이 타당화된 분노반추 척도(K-Anger Rumination Scale, K-A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억반추(8문항), 원인반추(3문항), 보복반추(5문항)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근배와 조현춘(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한 대학교 2곳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학교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고 행사장 및 수업 시간에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연구 설명문, 동의서, 설문지를 함께 배포하였다. 학생이 참여에 동의할 경우에만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간단한 간식거리를 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실시된 설문지는 직접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대인관계문제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분노반추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에 대한 소개, 설문지 작성 방법 및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인구통계학적 질문이 포함되었다.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1.0과 PROCESS macro (Hayes, 2013)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파악하였다. 둘째, 변인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는데,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한 번에 검증하는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여 표본수 5,000개를 재추출하고 95%의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식은 통계적으로 영가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만 검증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고 통계적 검증력이 낮으며 표본이 많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Hayes, 2013). 이에 비해 PROCESS macro는 여러 개의 매개변인이 있는 다중매개 모형을 한 번에 검증할 수 있으며,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여러 차례 반복 추출하여 간접효

과의 분포를 설정할 수 있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본수에 구애받지 않고 정규분포의 가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매개효과와의 검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Hayes & Scharkow, 2013).

결 과

1.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반추, 대인관계문제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반추,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선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반추, $r = .50, p < .01$, 순종, $r = .48, p < .01$, 공격, $r = .40, p < .01$, 고립형, $r = .54, p < .01$,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반추, 대인관계문제의 순종, 공격, 고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분노반추는 순종, $r = .32, p < .01$, 공격, $r = .37, p < .01$, 고립, $r = .38, p < .01$,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다.

2.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반추에 미치는 효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반추에 미치는 효과는 표 2와 같이 유의하여, $F = 81.668, p < 0.01$,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었고 설명량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내면화된 수치심의 회귀계수(β)가 0.353으로 유의하였으며, $p < .01$, 부트스트랩 결과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0.276)과 최대 계수값(0.430)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았다.

표 1.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반추,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 간의 상관관계

	1	2	3-1	3-2	3-3	평균	표준편차
1.내면화된 수치심	-					58.470	19.858
2.분노반추	.502**	-				46.820	13.970
3-1. 순종	.479**	.321**	-			38.241	11.870
3-2. 공격	.404**	.370**	.277**	-		32.865	12.586
3-3. 고립	.535**	.382**	.493**	.392**	-	22.241	8.496

** $p < 0.01$.

표 2.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반추에 미치는 효과

	β	se	t	p	LLCI	ULCI
상수	26.190	2.411	10.865	.000	21.442	30.938
내면화된 수치심	.353	.039	9.037	.000	.276	.430

Regression Model Test ; $R = 0.502$ $R^2 = 0.252$ $F = 81.668(p < 0.01)$.

3.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분노반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효과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효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유형인 순종에 대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반추가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확보되었고, $F = 37.797$, $p < 0.01$, 설명량은 24%이었다. 독립변수인 내면화된 수치심의 회귀계수(β)가 0.254로 유의하였고, $p < .01$, 부트스트랩 결과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0.177)과 최대 계수값(0.330)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개변수인 분노반추는 회귀계수(β)가 0.092, $p = 0.097$, 로 부트스트랩 추정치가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0.017)과 최대 계수값(0.201) 사이에 0이 존재하여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유형인 공격에 대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반추가 미치는 효과를 살

펴보면,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확보되었고, $F = 30.451$, $p < 0.01$, 설명량은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내면화된 수치심의 회귀계수(β)가 0.185로 유의하였고, $p < .01$, 부트스트랩 결과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0.102)과 최대 계수값(0.268)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수 간 관계가 유의하였다. 매개변수인 분노반추도 회귀계수(β)가 0.202로 유의하였고, $p < .01$, 부트스트랩 추정치 역시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0.084)과 최대 계수값(0.320)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효과가 유의하였다.

셋째,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유형인 고립에 대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반추가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확보되었고, $F = 52.750$, $p < 0.01$, 설명량은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내면화된 수치심의 회귀계수(β)가 0.196으로 유의하였고, $p < .01$, 부트스트랩 결과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0.144)과 최대 계수값

표 3.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분노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효과

종속변인 : 순종						
	β	se	t	p	LLCI	ULCI
상수	19.099	2.524	7.567	.000	-14.127	24.071
수치심	.254	.039	6.546	.000	.177	.330
분노반추	.092	.055	1.668	.097	-.017	.201
Regression Model Test ; R = 0.488 R ² = 0.238 F = 37.797(p < 0.01.)						
종속변인 : 공격						
	β	se	t	p	LLCI	ULCI
상수	12.597	2.740	4.597	.000	7.199	17.995
수치심	.185	.042	4.399	.000	.102	.268
분노반추	.202	.060	3.371	.001	.084	.320
Regression Model Test ; R = 0.448 R ² = 0.201 F = 30.451(p < 0.01.)						
종속변인 : 고립						
	β	se	t	p	LLCI	ULCI
상수	6.429	1.727	3.722	.000	3.027	9.831
수치심	.196	.027	7.394	.000	.144	.248
분노반추	.093	.038	2.460	.015	.019	.167
Regression Model Test ; R = 0.551 R ² = 0.304 F = 52.750(p < 0.01.)						

(0.248)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수 간 관계가 유의하였다. 매개변수인 분노반추도 회귀 계수(β)가 0.093, $p = 0.015$, 로 부트스트랩 추정치가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0.019)과 최대 계수값(0.167)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모형의 총효과와 직접 및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총효과가 순종에서 0.286, 공격에서 0.256, 고립에서 0.229였으며, 부트스트래핑 검정 결과도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직접효과가 순종에서 0.254, 공격에서 0.185, 고립에서 0.196이었고 부트스트래핑 검정 결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그러나 간접효과는 공격에서 0.071, 고립에서 0.033으

로 부트스트래핑 검정 결과에서 유의하였으나, 순종은 0.032로 부트스트래핑 검정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매개분석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반추를 매개로 공격과 고립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순종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CESS macro 분석은 완전매개와 부분매개가 표본 수의 영향을 받으며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완전매개’나 ‘부분매개’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Hayes, 2013).

표 4. 매개분석 결과

Independent Variable	Mediating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LLCI	ULCI	LLCI	ULCI	LLCI	ULCI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반추	순종	.254		.032		.286	
			.177	.330	-.004	.077	.220	.353
		공격	.185		.071		.256	
			.102	.268	.017	.128	.183	.330
		고립	.196		.033		.229	
			.144	.248	.001	.072	.183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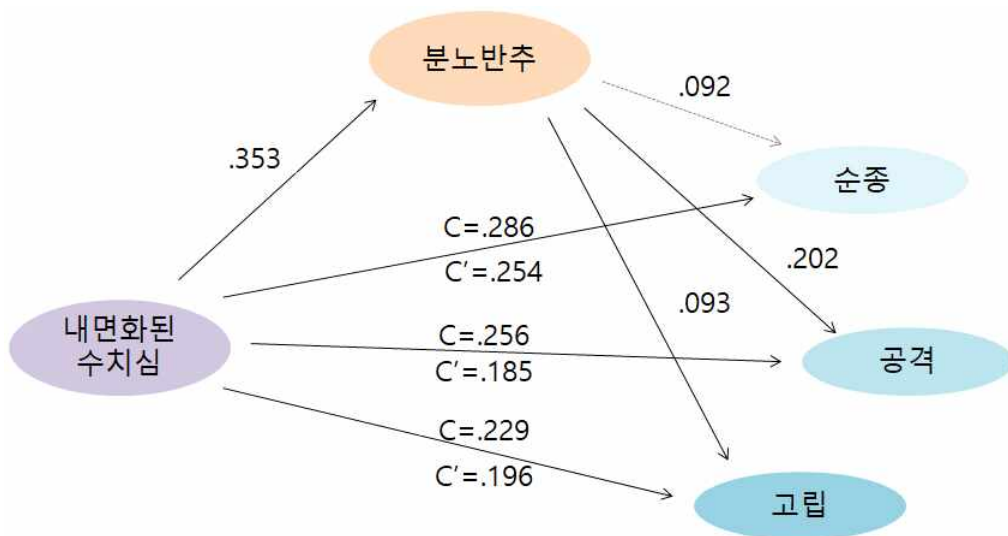


그림 2. 매개모형 분석 결과

c는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 하위유형에 미치는 효과 크기
 c'는 매개변인이 있는 모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 하위유형에 미치는 효과 크기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반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내적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분노반추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인관계문제를 순종, 공격, 고립의 세 가지로 분

류하여 각각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반추, 대인관계문제와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분노반추와 대인관계문제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내적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의 순종, 고립, 공격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내

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일으킨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민경, 현명호, 2013)와 일치한다. 자신의 열등하고 부족한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으면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여 타인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대상을 공격하여 대인관계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권다운, 2015). 또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순종적 태도를 보이고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맺으며(고종숙, 2016), 고립되려는 태도나 사회적 철회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김민주, 2018; Tangney, 1992).

이러한 결과는 많은 이론가가 수치심을 생애초기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경험되는 정서로 논의한 것(이인숙, 최해림, 2005)과 관련되어 이해할 수 있다. 생후 어머니와 주양육자와의 사이에서 경험한 불안정한 상호작용이 수치심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정체감에 영향을 미쳐 내면화되면서 대인관계문제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Kaufman, 1989). 특히 수치심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후 나타나는 자의식적 평가 정서다(Lewis, 1993). 수치심이 내면화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여 부정적 평가를 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타인의 시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면서 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거리를 두는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되어(이지연, 2008; Tangney & Fisher, 1995)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고 지속하게 된다.

셋째, 내적 수치심은 분노반추의 매개를 통해 순종을 제외한 공격과 고립 같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반추가 높으며 이를 매개로 대인관계문제가

나타나는데, 분노반추가 높을수록 순응적 태도보다는 공격적이거나 고립적인 태도를 유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크기는 순종, 고립, 공격 순이었던 반면, 분노반추가 매개되면 공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노반추가 분노 경험의 유지기간이나 강도를 높여 부정적 특성이 커지면서 사람에게 맞서거나 멀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의식의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정서로 주양육자로부터 타인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를 통해 생성되어(권다운, 2015; 이인숙, 최해림, 2005) 대인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성격 특질이지만, 인지적 과정에 따라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반추 중 보복반추를 많이 할수록 타인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고 원인반추를 많이 할수록 타인의 욕구에 대해 지나친 관여를 한다는 연구(임문영, 2014)를 비롯해 분노반추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분노를 경험 하였던 상황에 다시 마주치면 더욱 공격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Bushman, Bonacci, Pedersen, & Vasquez, 2005; Collins & Bell, 1997)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분노반추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분노 억제를 하여 자기주장을 하지 못해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상황을 불안해하고 회피한다는 연구 결과(고윤경, 2007; 박은혜, 2010; 정미리, 2005; 최임정, 심혜숙, 2010), 분노반추가 대인관계의 냉담과 사회적 억제 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던 연구(박은혜, 2010; 이성은, 2014)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지연(2008)은 수치심이 높을수록 회피와 억제 뿐 아

니라 투사, 수동공격, 행동화와 같은 방어를 더욱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분노반추는 이러한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강화하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유발,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 결과는 치료 및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환자나 내담자를 다룰 때 부정적 감정 기저에 있는 수치심과 함께 분노감정 및 분노반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은 직면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치료 및 상담 장면에서 놓치기 쉬우며 (안봉화, 2011), 유아기 초기에 형성되어 성격적 특성으로 자리 잡는 만성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더라도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내적 수치심으로 인해 쉽게 분노를 경험하면서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 내담자에 대해서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분노반추에 대한 인지치료 등의 치료적 개입을 통해 분노와 분노표현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치료 효과를 보다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대에 들어 마음챙김 명상에 기초한 인지행동치료가 주목을 받아 왔다(문현미, 2005; 조용래, 2003). 마음챙김 상태는 강한 정서가 촉발되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회복을 촉진한다. 마음챙김을 통해 분노경험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지각하는 과정을 통해 충동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Wright, Day, & Howells, 2009). 따라서 마음챙김 명상치료 기법도 치료 장면에서 적용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치료적 접근이 쉽지 않은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서 분노반추라는 인지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보다 접근이 용이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대인관계문제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살펴본 많은 연구가 문제의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검증한 측면이 많았으며 순종, 공격, 고립에 대해 모두 살펴본 연구가 미비하여 이를 구별하여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서울시와 경기도의 2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우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다. 대인관계문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각 변인의 특성을 좀 더 균형적으로 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왜곡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분노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분노가 바람직하지 못한 정서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축소보고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각 변인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나 실제 행동으로 반영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행동관찰, 면접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함께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살펴본 분노반

추는 인지적 과정으로 분노나 공격성을 높여 대인관계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외에도 대인관계문제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부민감성도 대인관계에 의존하거나 적대적, 회피적으로 행동하여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김지윤, 진미경, 2019). 이렇게 대인관계문제에 정적,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인관계문제는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서미 등, 2018) 대인관계는 인생 전반에 걸쳐 경험하는 것으로 성인에게도 사회적 기능 유지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되어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언급한 마음챙김 명상치료 기법과 같이 치료적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정서적, 인지적 요인에 대한 연구 및 대인관계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대해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윤경 (2007). 분노표현태도와 대인관계문제: 분노표현 방식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종숙 (2016). 내면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자기자비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다운 (2015).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과 분노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 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 김민경, 현명호 (2013).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및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61-176.
- 김민주 (2018). 자기에 취약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분노반추를 통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환,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391-411
- 김지윤, 진미경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연구, 26(4), 355-378.
- 문현미 (2005). 인지행동치료의 제 3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5-33.
- 박경애, 이재규, 권혜수 (1998).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63, 1-281.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은혜 (2010). 우울취약성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미 (2013). 자기에 성향과 용서의 관계: 분노반추의 매개효과와 의도지각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미, 소수연, 장유진, 조은희, 이지은, 양명진 (2018). 청소년상담 사례지도 모형개발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서영숙, 김진숙 (2007). 사회적 행동 구조분석(SASB)모형을 통해 본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이미지 및 대인패턴. 상담학 연구, 8(3), 859-875
- 서은혜 (2005). 초등학교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 및 사회성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봉화 (2011). 내면적 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 학위 청구논문.
- 안세은 (2014).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를 통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근배, 조현준 (2008). 한국판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4(1), 1-22
- 이성은 (2014). 특성분노와 분노반추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척도(ISS)의 타당화 연구-예측,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지연 (2008).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표현의 관계. *상담학연구*, 9(2), 353-373
- 이화수 (2014). 정서표현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을 조절변인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문영 (2014). 분노반추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진, 김은정 (2012). 청소년의 실제-이상 자기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반추적 반응양식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19(1), 279-306.
- 장석진, 연문희 (2009). 애착이론에 근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및 능력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031-2054.
- 장진아 (2006). 여성의 대상관계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리 (2005). 분노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추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용래 (2003). Aabt 제 37차 연차학술대회 참관기. *인지행동치료*, 3(1), 93-98.
- 조윤경, 윤희섭, 김희중, 이승희, 고훈우, 김민경 (2015a). 2015 신입생 의식조사 및 정신건강 실태보고.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생활상담센터 학생생활연구, 40, 1-40
- 조윤경, 윤희섭, 김희중, 이승희, 고훈우, 김민경 (2015b). 2015 재학생 의식조사 및 정신건강 실태보고.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생활상담센터 학생생활연구, 40, 41-104
- 조효진 (2008).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두환 (2013).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 척도의 단축형 (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Alden, L. E., & Phillips, N. (1990). An interpersonal analysis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99-513.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 Anestis, M. D., Anestis, J. C., Selby, E. A., & Joiner, T. E. (2009). Anger rumination across forms of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2), 192-19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ck, A. T. (2000).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Perennial.
- Bushman, B. J. (2002). Does venting anger feed of extinguish flame? Catharsis, rumination,

- distraction, anger and aggressive respond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6), 724-731.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983
- Cheung, M. S.-P., Gilbert, P., & Irons, C. (2004). An Exploration of shame, social rank and rumination in relation to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5), 1143-1153.
- Collins, K., & Bell, R. (1997). Personality and aggression: The dissipation-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2(5), 751-755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2), 197-215.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orth Twanda, NY; Channel press.
- Deffenbacher, J. L., & McKay, M. (2000).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Oakland: New Harbinger.
- Ellis, A. E. & Tafrate, R. C. (1997). *How to control your anger before it controls you*. New York: Citadel Press.
- Gilbert, P., Allan, S., & Goss, K. (1996). Parental representations, shame, interpersonal problems, and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3(1), 23-34.
- Greenberg, L. (1995). Cognitive processing in trauma: The role of intrusive thoughts and reappraisa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14), 1262-1296.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ew York: Guilford.
- Hayes, A. F., & Scharkow, M. (2013). The relative trustworthiness of inferential tests of the indirect effect in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Does method really matter? *Psychological Science*, 24(10), 1918-1927.
- Horney, K. (2006).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이희경, 윤인, 이해라, 조한인 역). 서울: 학지사.
- Horowitz, L.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2), 283-300.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ear, B. A., Uren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H. B. (1987).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wis, M. (1993). Self-conscious emotions: Embarrassment, pride, shame and guilt. In M. Lewis & J. H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Lyubomirsk, S., & Nolen-Hoeksema, S. (1995). Effects of self-focused rumination on negative thinking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176-190.
- Rusting, C. L., & Nolen-Hoeksema, S. (1998). Regulating response to anger: Effect of rumination and distraction on angry mood.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90-803.
- Sell, A., Tooby, J., & Cosmides, L. (2009). Formidability and the logic of human ange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06(35), 73-78.
- Sukhodolsky, D. G., Golub, A., Cromwell, E. N.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1(5), 689-700.
- Tangney, J. P., Wagner, P. E., Fletcher, C., & Gramzow, R. (1992). Shamed in to anger?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669-675.
- Tangney, J. P., Ficher, K. W. (1995).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New York: Guilford Press
- Tomsen, D. K.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rumination and negative affect: A review. *Cognition and Emotion*, 20(9), 1216-1235.
- Wells, M. D., Hill, M. B., Brack, B., Brack, C. J., & Firestone, E. E. (2006). Codependency' s relationship to defining characteristic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20(4), 71-84.
- Wright S., Day. A., & Howells, K. (2009). Mindfulness and the treatment of anger problem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5), 396-401.

원고접수일: 2019년 7월 26일

논문심사일: 2019년 8월 5일

게재결정일: 2019년 11월 5일

The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Rumin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Yun-Kyung Cho Myoung-Ho Hyun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rumin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to identify the role of anger rumination as a mediator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65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under age 30 in Seoul and Gyeonggi-do. The students were assessed with the 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KIIP-SC), The Internalized Shame Scale(ISS), and The K-Anger Rumination Scale(K-ARS). As a result, internalized shame affected anger rumination and subtypes of interpersonal problems, obedience, attack and isolation. Anger rumination also affected attack and isolation, but no significant effect was found in obedience. In the results of the mediating effect,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rumination was significant for attack and isolation in the effect of internal sham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ut not for obedienc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ternalized shame is a personality trait that is closely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ut the negative influ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iffers according to cognitive processes. Thus, it is suggested that when helping patients or clients who complain of interpersonal problems in clinical and counseling situ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ger rumination with the shame underlying negative emotions.

Keywords: internalized shame, anger rumination, interpersonal problems, obedience, attack, isolation